

블랙코미디 같은 도시의 허상

송민규가 그리는 도시 풍경은 흡사 그곳의 알팍한 표피만 도려내 보여 주는 것 같다. 그 표피 같은 이미지 사이로, 헛헛한 유머와 예민한 비판적 시선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다. 작가는 “삶 속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수집, 기록하여 그것을 다시 현대적 기호로 변형, 모듈화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그리고 그 ‘포착된 이미지’란 일상적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허상에 가깝다. 예를 들면 이렇다. 내면의 허름함을 감추고자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현대 도시의 이면성, 혹은 거리를 가득 채운形形色색의 간판 공해와 넘쳐 나는 캐치 프라이즈 등이 보여 주는 ‘표피 뿐인 슬로건 문화’를 회화로 패러디하는 것이다. 정겨운 수수깥 색을 떠올리게 하는 파스텔 톤의 정채도는, 실은 실제 도시 풍경 사진에서 추출한 인공적인 중성색이다. 일견 유쾌, 경쾌해 보이지만 볼수록 서서히 예민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양면적인 색상과 정갈하게 정리된 구조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듯 송민규의 ‘편집’된 도시 풍경은 시니컬한 헛웃음이 배어 있는 일종의 블랙코미디처럼 보인다.

송민규 1981년 서울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과정 졸업. 갤러리킹(2010) 갤러리소소(2008)에서 두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여러 차례 그룹전에 참가했다.

《책 속의 미술관 02: 모래》(2010 시공사), 계간 《그래픽》의 <셀프 퍼블리싱 이슈>(2009) 등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Into Drawing 공모전>(2007 소마미술관)에 선정됐다.